

제주지역 쉐너투어리즘의 관광동기특성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제주4.3평화 공원 방문객 대상으로 -

Tourist Motivation Characteristics of Thanatourism:
Focused on Visitors to Jeju April 3rd Peace Park

吳 相 勛**

Oh, Sang-Hoon

ABSTRACT

Tourism resources related to violent death of people have potential to attract special interest tourist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ourist motivation to visit thanatourism site and its impact on tourist satisfaction. Based on the related literatures, five dimensions(i.e., death experience, novelty, specificity, historicity and remembrance) of thanatourism motivation were derived. Data were collected from 291 visitors to Jeju Peace Park on May 2009.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five dimensions of thanatourism motivation were valid and reliabl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among 5 motivations, death experience and specificit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visitor satisfact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visitors motivations of thanatourism sites might b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ourist sites.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핵심용어(Key words) : 쉐너투어리즘(Thanatourism),
관광동기(Tourist motivation),
만족(Satisfaction)

* 본 논문은 2009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공모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shoh323@jejunu.ac.kr

I. 서 론

포스트모던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죽음을 구성하고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운명의 매력물(fatal attraction)을 창조하게 되었다. 또한 포스트모던 관광객은 윤리적 도덕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사관광지(死觀光地)를 방문한다. 다시 말해서 사관광지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아픔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상관없이 타인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비적 사색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은밀한 즐거움과 향수를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죽음이나 재앙에 관련된 장소로서 미국의 그라운드 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일본의 히로시마,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랑크 박물관 등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목적지이다(서철현, 2009). 국내의 경우 한국의 판문점, 광주 5.18묘역 등의 장소가 관광객들이 '죽음'과 간접접촉을 하며 사색을 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잔학행위가 있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혹은 그 사건과 관련된 참사현장을 방문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죽음(death)'과 관련된 관광지를 방문하는 현상을 주목한 선행연구자들은 다크투어리즘(darktourism)(Foley & Lennon, 1996), 썬너투어리즘(thanatourism)(Seaton, 1996), 블랙스팟(black Spot)(Rojek, 1993) 등 개념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대상으로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Seaton(1996)은 '죽음'과 관련된 곳을 방문하는 특별한 동기가 관광현상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죽음'을 공감하고자 하는 행동적 요소가 Foley & Lennon(1996)의 다크투어리즘의 현상과 대별되는 차이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관련된 관광지는 특별한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썬너투어리즘의 현상이 내재된 곳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잠재력이 있다(Ashworth, 2004; Seaton & Lennon, 2004; Ashworth & Hartmann, 2005). 이러한 잠재력으로 인해 선행연구자들은 '죽음'과 관련된 곳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Stone, 2005). 또한 다크투어리즘에서 접근하는 개념과 차별적인 요소로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썬너투어리즘의 현상을 살펴보고 위하여 '죽음'과 관련된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관광동기와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제주에는 '죽음'과 관련된 곳으로 제주4.3평화 공원이 있다. 이곳은 6.25

다음으로 많은 대량학살을 가져왔던 4.3 사건을 기리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 즉, 4.3의 기억을 다크투어리즘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현혜경, 2008), 제주4.3평화공원에 대한 방문동기(장애옥·최병길, 2011), 제주 4.3평화공원에 대한 방문가치(Kang, 2011) 등은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재양지로서 4.3사건의 기억을 사회문화운동으로 모색하거나 방문객의 동기를 포괄적인 범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죽음’과 관련된 곳으로서 방문된다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은 Seaton(1996)의 제기한 ‘죽음’과 관련된 곳으로 방문객의 행동적 성향이 있는 썬터투어리즘의 현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썬터투어리즘 관광지(thanatourism sites)인 제주 4.3평화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관광명소화 전략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썬터투어리즘의 관광동기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하는 설문을 구성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썬터투어리즘의 관광동기 특성과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썬터투어리즘의 개념

썬터투어리즘은 휴양이나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 여행과는 달리, ‘죽음’과 관련된 장소들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Seaton, 1996).

서철현(2007)은 썬터투어리즘을 “그리스 신화의 죽음의 신(神)이라 불리우는 타나토스(thanatos)에서 유래되어 역사적으로 어두운 과거가 있는 장소나 죽음과 관련된 곳을 순례하는 여행”이라고 정의했다.

Seaton(1996)는 Feley & Lenon(1996)¹⁾이 정의한 다크투어리즘의 현상과 대별되는 요소로서 ‘죽음’과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여행하는 관점을 썬터투어리즘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특징으로서 ‘죽음’을 공감하고자 하는 ‘행동적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썬터투어리즘의 강한 성향은 ‘죽음’과 관련된 것을 추구하거나 매료되어 고대 지하묘지 등을 방문하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1) Feley & Lenon(1996)은 「죽음과 재앙의 매력성(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크투어리즘이란 현실적이고 상업화로 인한 죽음 및 재난 발생 장소를 방문한 것에서 발생하는 관광객들의 표현 및 소비 현상”이라고 했다.

하였다. 예컨대, 전쟁터 테마 투어는 ‘흥미유발’ 요소로서 개념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재앙지(catastrophe sites), 재난지역(disaster), 수용터(internment ground) 등 추모성향이 있는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Seaton & Lennon, 2004: 77). 이는 ‘죽음’이라는 요소가 상업 목적으로 관광목적지를 설립한 묘지나 유명인사의 재난장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Rojek, 1993). 또한 웰다잉(well-dying)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간접체험을 경험하고도 한다(최준식, 2010).

Seaton(1996)는 관광객들이 관광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부가적으로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나, ‘죽음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목적지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죽음의 현장’에서의 사건과 관계없이 ‘죽음’이라는 자체에 흥미를 느낀다고 하였다. 예컨대 전자는 전쟁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며 후자는 묘지나 대참사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해당된다.

한편 썬너투어리즘의 현상이 있는 관광지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홀로코스트(holocaust)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auschwitz birkenau)는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에 130만명이 방문한 폴란드 최고의 박물관 명승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Auschwitz-Birkenau, 2009). 노예 지하감옥(salve dungeons)인 가나의 항금해안에 위치한 성채(forts and castles)는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가나 정부차원에서 성채들을 방문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Cheryl, 2007). 원자폭탄으로 7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일본 히로시마에 남아있는 유적인 겐바쿠 돔(genbaku dome)은 197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평화를 기념하는 히로시마의 대표 관광지로 선정되어 있다.

2. 썬너투어리즘의 동기유형

썬너투어리즘 방문객들의 동기는 일반 여행의 관광동기와 차별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서철현, 2007; Seaton, 1996; Rojek, 1993). 다시 말해서, 사관광지라는 특성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관광객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Seaton(1996)는 죽음과 관련된 관광 동기에 대한 부여가 다양한 욕구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는 관광목적지의 속성이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인동기(Yoon & Uysal, 2005)로서, 사관광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에 의해 상호작용 되어 복합적인 동기로서 나타나고 있다(Swarbroke

& Homer 1999: 56). 그러나 Crawshaw & Urry(1997)는 사관광객들이 단순한 여행체험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관광객과는 차별적인 목적을 추구한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Dunkley(2007:69)는 사관광지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사관광객들의 목적지 선택 요소로서 순례(pilgrimage), 추모(remembrance), 연민·공감(compassion & empathy), 삶과 죽음을 공감(contemplation of life & death), 자아발견(self discovery), 이익집단(special interest), 위험 혹은 스릴 추구(risk or thrill seeking), 실체성(validation), 진실성(authenticity), 상징성(iconic), 호기심(curiosity), 편의시설(convenience) 등 12가지를 제시했다.

사관광지는 ‘죽음’이라는 호기심을 동반한다(Dann, 1995). Walter(1984: 67)는 ‘레크리에이션으로서 죽음(death as recreation)’을 논의하면서 사회적 범위에서 벗어난 활동으로 사관광지를 방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잔혹행위(atrocity)가 관광객들에게 엔터테인먼트 가치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Ashworth, 2004: 98), 호기심 대상으로서 사관광지가 선택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Lennon & Foley, 2000; Tarlow, 2005). 이러한 현상은 알로센트릭(allocentric) 유형으로서 모험적이고 진취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관광객 유형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Plog, 1974). 예컨대 런던감옥에서 구현되는 공포체험 투어는 알로센트릭 유형의 관광이자 사관광의 유형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Tarlow, 2005). 따라서 사관광지를 방문하는 동기는 죽음과 관련된 ‘죽음성’, 호기심을 유발하는 ‘특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관광지는 ‘평화와 자유’를 담은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Tarlow 2005: 48). 사관광객들은 사관광지의 방문을 통해 애국심을 느끼고자 하거나(Sharpley, 2003: 29), 개인의 정체성을 공감하고자 방문하기도 한다(Bruner, 1996). Ashworth(2004)는 관광객들이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의 욕구로 인하여 개인과 연관된 역사를 탐구하고자 하며, 그 대상으로서 유산관광(heritage tourism)과 관련된 사관광지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관광지로서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혹은 추모를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다(Ashworth 1996: 4; Foley, Lennon & Maxwell, 1997).

사관광지는 대중매체의 흥미유발 소재로서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Lennon & Maxwell, 1997; Ashworth, 2004: 98). 다시 말해서 사관광지의 방문은 모험적 요소를 동반한 여행이며(Bristow & Newman, 2004), 스릴(thrill)을 추구하거나 즐거움(pleasure)을 느끼기 위해서 방문한다(Dunkley, 2007: 84). Dann & Seaton(2001)의 연구에서는 사관광지에 대해 젊은 세대

가 공감하는 것과 나이는 세대가 공감하는 사관광지는 다른 관점에서 인식된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매스미디어 환경 즉, 사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영상매체나 콘텐츠로 인해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Seaton & Lennon(2004)은 젊은 세대들이 유령의 거리나 역사적 전쟁터들을 스토리텔링의 요소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관광지 방문은 교육목적 보다 엔터테인먼트의 측면이 강한 성향이 있다고 했다.

한편 장애옥·최병길(2011)는 제주4.3평화공원 방문동기를 역사성, 위락성, 유대성, 4.3관련성, 매력성 등 5개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위락회피집단, 사회유대중시집단, 역사가치중시집단 등 3개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3. 동기와 만족과의 관계

사관광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경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사관광객의 만족은 매우 중요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광객의 만족 정도에 따라 관광지에 대한 재방문 가능성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ozak & Rimmington, 2000).

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자들은 기대불일치 모델(Oliver, 1980)과 순가 이론(Oliver & Swan, 1989), 기준 이론(Latour & Peat, 1979), 지각된 성과 모델(Tse & Wilton, 1988)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나 선호, 평가기준으로서의 경험이나 적응수준, 서비스 품질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구매 후 평가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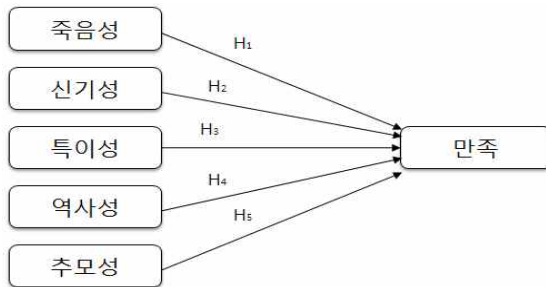
동기와 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추진동기와 만족과의 관계(서진우·전인호·유행주, 2005; 김기홍·정웅용·권봉현, 2004), 추진동기와 유인동기 그리고 관광만족 간의 관계(Yoon & Uysal, 2005; 최병길·변수녀, 2007) 등이 있다. 서진우(2005)등은 울산을 방문한 관광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연경관 관람, 휴식,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탈출 등 일탈성 요인이 방문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기홍(2004)등은 모험심, 일상탈피, 이벤트참여, 대인관계 등이 관광선택에 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추진동기에 의해서 방문되고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Yoon & Uysal(2005)과 최병길·변수녀(2007)는 관광자원, 관광서비스, 관광이벤트, 관광시설 등 유인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4.3평화공원의 목적지 혹은 선택지로서 유인동기로 인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설

정하여, Yoon & Uysal(2005)에서 제시했던 유인동기와 만족의 관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접근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죽음'과 관련된 곳인 제주4.3평화공원을 대상으로 썰너투어리즘의 관광동기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썰너투어리즘의 관광동기의 유형을 제시한 Dunkley(2007), Ashworth(2004), Seaton & Lennon(2004)등 연구를 토대로 죽음성, 신기성, 특이성, 역사성, 추모성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관광동기와 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한 Yoon & Uysal(2005)과 최병길·변수녀(2007)를 참고하여 썰너투어리즘의 동기유형과 만족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5개로 설정했다.

- [가설 1] 사관광객의 죽음성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사관광객의 신기성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사관광객의 특이성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사관광객의 역사성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사관광객의 추모성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상기 기술한 바대로 사전 문헌 조사가 선행되었으며, 각 구성개념들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재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은 본 연구와 학문영역 특성에 맞게 수정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화된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배부된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응답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적인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이 조사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 문항에 관한 질문을 할 경우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완성된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사전에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숙지시킨 조사원 3명이 제주 4.3평화공원에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하여 1:1 면접법(face-to-face interview)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8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전 개장 시간부터 폐장 시간까지 조사에 임하였으며, 관람이 완료된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했으며 그 중 295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설문작성이 종료되지 않은 4부를 제외한 29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방문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쉼너투어리즘의 동기 유형, 만족 등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인구 통계적 특성은 7문항으로 구성했다. 동기유형은 죽음성 5문항, 신기성 5문항, 특이성 5문항, 역사성 3문항, 추모성 2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만족 4문항으로 구성했다.

설문에 대한 측정은 동기유형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그렇다’ 5점 등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만족하다’ 등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설문을 구성하기 위해 사전 문헌조사가 선행 됐으며, 각 구성개념들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재정의 했다. 각 구성개념과 측정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참고문헌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참고문헌

구성개념 (측정항목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죽음성(5)	죽음과 관련된 자료 관람, 유물 등을 보거나, 죽음의 현상을 체험을 추구하는 동기	
신기성(5)	예측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위험이나 스릴을 간접경험을 추구하는 동기	Seaton(1996) Ashworth(2004)
특이성(5)	일반적인 곳과 차별적인 경관, 관광시설, 흥밋거리, 문화 등을 추구하는 동기	Seaton & Lennon(2004)
역사성(3)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유물을 통해 교육활동을 추구하는 동기	Dunkley(2007)
추모성(2)	추모를 위한 곳이나 신성한 곳의 방문을 추구 하는 동기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2.0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통계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했다.

IV. 실증분석

1.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66명(57%), ‘여성’이 125명(43%) 등으로 남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115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71명(24.4%), ‘40대’가 61명(21%), ‘50대 이상’이 44명(9.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자영업’이 86명(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직’과 ‘기술직’이 각각 31명(10.7%), ‘공무원’이 30명(1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행형태를 살펴보면, 여행기간별로는 ‘3박4일’이 112명(38.5%), ‘2박3일’이 92명(31.6%), ‘4박5일’이 49명(16.8%), ‘1박2일’이 38명(6.9%) 등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반자별로는 ‘친구나 회사동료와 함께’라고 응답한 층이 121명(41.6%)로 가장 많았다. 여행형태는 개별여행이 196명(67.4%)로 가장 많았다.

<표 2> 일반적인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166(57.0%)	관리직	15(5.2%)		
	여	125(43.0%)		전문직	31(10.7%)	
연령	20대	115(39.5%)	기술직	11(3.8%)		
	30대	71(24.4%)		사무직	31(10.7%)	
	40대	61(21.0%)		서비스직	28(9.6%)	
	50대이상	44(15.1%)		직업	판매직	10(3.4%)
					기능직	3(1.0%)
월 소득	101-200만원	15(5.2%)	노무직	2(0.7%)		
	201-300만원	55(18.9%)	공무원	13(4.5%)		
	301-400만원	54(18.6%)	자영업	30(10.3%)		
	401-500만원	102(16.2%)	기타	117(41.2%)		
	501만원이상	47(6.1%)				
	결측치	18(6.2%)				
여행 기간	1박2일	38(6.9%)	동반자	혼자	18(6.2%)	
	2박3일	92(31.6%)		부부/연인(남녀 2명)	29(10.0%)	
	3박4일	112(38.5%)		가족과 함께	66(22.7%)	
	4박5일이상	49(16.8%)		두 가족 이상	9(3.1%)	
				내가족과 친구와 함께	23(7.9%)	
여행 형태	개별여행	196(67.4%)	친구나 회사동료와 함께	121(41.6%)		
	개별여행(여행사)	11(3.8%)	단체나 동호인들과 함께	23(7.9%)		
여행 형태	단체여행(여행사)	28(9.6%)	기타	2(0.6%)		
	단체여행	56(19.2%)				
계		291(100%)	계	291(100%)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동기에 대한 항목을 활용해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과 주성분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죽음성, 신기성, 특이성, 역사성, 추모성 등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됐으며, 고유값은 각각 3.68, 3.16, 2.64, 2.47, 1.7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설명력은 각각 18.39%, 15.81%, 13.22%, 12.35%, 8.96% 등으로 총 분산설명력은 68.73%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죽음성(.892), 신기성(.819), 특이성(.792), 역사성(.832), 추모성(.829) 등으로 나타나 ≥ 0.6 이므로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새너투어리즘의 동기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요인명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도 계수
F1 죽음성	죽음과 관련된 자료 관람을 보기 위해서	.863	.772	3.68 (18.39%)	.892
	죽음과 관련된 유물을 보고 싶어서	.842	.723		
	죽음에 대한 간접경험을 공감하기 위해서	.830	.712		
	죽음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797	.675		
	죽음의 실체를 느끼고 싶어서	.763	.698		
F2 신기성	예측이 되지 않는 곳이라서	.801	.651	3.16 (15.81%)	.819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742	.584		
	위험을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738	.689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서	.726	.586		
	흥미가 있는 곳이라서	.648	.601		
F3 특이성	차별적인 경관이 좋아서	.837	.755	2.64 (13.22%)	.792
	차별적인 관광지를 경험하기 위해	.809	.745		
	공원내 불만한 곳이 많아서	.699	.651		
	개인적 흥미와 관련된 곳이라서	.549	.543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545	.481		
F4 역사성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곳이라서	.902	.852	2.47 (12.35%)	.832
	역사적 유물이 있는 곳이라서	.828	.765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736	.645		
F5 추모성	추모를 하기 위해서	.832	.820	1.79 (8.96%)	.829
	신성한 곳이라서	.810	.797		
KMO= .818		Chi-Square= 2926.100	sig= .000***	총분산설명력= 68.73%	

***p < 0.01

3. 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에서 측정된 만족에 대한 항목을 활용하여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과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방문 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요인명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도 계수
만족	역사적 자료에 대해 만족함	.812	.659	1.85 (61.71%)	.684
	전시된 유물에 대해 만족함	.811	.658		
	방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731	.532		
KMO= .654		Chi-Square= 147.402	sig= .000	총분산설명력= 61.71%	

그 결과 공통성(≤ 0.4) 낮은 1개(‘시설에 대한 만족 .362) 항목을 제외한 3개 항목이 단일차원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고유값은 1.85로 나타났으며 분산설명력은 61.71%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684 등으로 나타나 ≥ 0.6 이므로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썰너투어리즘의 동기특성을 도출하고 그 현장에서 동기에 따른 기대이후 나타난 태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죽음성, 신기성, 특이성, 역사성, 추모성 등 썰너투어리즘의 동기요인을 독립변수로 고려하고, 만족을 종속변수로 구성해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설 검증 결과는 부분채택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기성과 만족, 역사성과 만족, 추모성과 만족 등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죽음성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역사성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회귀모형은 설명력(R^2)이 13.9%이고, 다중공선성은 $VIF < 10$ 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동기특성과 만족과의 관계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분산	
	B	표준오차	베타			통계량	설명력	
						공차한계	VIF	
(상수)	2.796	.190		14.718	.000			
만족	죽음성	.086	.036	.138	2.363	.019**	.881	1.136
	신기성	-.058	.041	-.089	-1.410	.160	.752	1.330
	특이성	.027	.047	.037	.563	.574	.711	1.406
	역사성	.242	.045	.347	5.354	.000***	.718	1.392
	추모성	.007	.036	.012	.187	.852	.736	1.359
	F값=10.229		$R^2=.139$		유의확률 0.00***			

** $p < 0.05$ *** $p < 0.01$

V. 결 론

본 연구는 ‘죽음’의 현상을 방문하는 현상을 조명하고 사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욕구와 목적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 쉼터투어리즘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고, 일반적인 관광동기의 유형과 사관광지 방문동기 유형의 차별적인 요소를 도출했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제주지역의 사관광지로서 제주4.3평화공원에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사관광지를 방문하는 동기는 유인동기유형으로서 5개로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Dunkley(2007)의 결과와 유사하다. Dunkley(2007)가 제안한 사관광 유인동기는 ‘죽음성’, ‘특이성’, ‘신기성’, ‘추모성’, ‘역사성’ 등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죽음’과 관련된 자료나 유물을 보거나 현상을 체험하기 위한 ‘죽음성’, 예측되지 않는 곳이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위험이나 스릴을 경험하고자 하는 ‘신기성’, 그리고 차별적인 경관이나 관광시설을 보고자 하는 ‘특이성’ 등이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나 유물을 보고자 하는 ‘역사성’과 추모를 위한 곳으로 설명되는 ‘추모성’ 등이 포함되었다.

유인동기는 관광지에 의해 자극되어지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여행하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준다(Dann, 1977). 이는 ‘죽음’과 관련된 곳이라는 사관광지의 방문욕구는 유인동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4.3평화공원이라는 곳을 방문전 추구하는 동기는 ‘죽음성’, ‘특이성’, ‘신기성’, ‘추모성’, ‘역사성’ 등이며, 일반관광의 동기보다 차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쉼터투어리즘의 관광동기인 ‘죽음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Seaton(1996), Ashworth(2004) 등이 의견을 증명하였다. ‘죽음’이란 소재가 엔터테인먼트로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주4.3평화공원은 학살현장인 동시에 ‘죽음’이라는 현상을 공감하고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문객들은 ‘죽음’의 현상을 느끼기 위한 욕구를 바탕으로 사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봉은사의 웰다잉(well-dying) 체험교실은 ‘죽음’이라는 테마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한국경제, 2006).

셋째, 쉼터투어리즘의 관광동기인 ‘역사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Tarlow(2005: 28)가 주장한 사관광지의 ‘역사성’으로 인하여 방문한다는 이유와 유사하다. 제주4.3평화공원은 4.3사건 당시의 기록물들이 있어 역사적 유물을 관람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교육활동을 위한 곳

으로 후손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썬너투어리즘의 ‘신기성’, ‘특이성’, ‘추모성’ 등 요인들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방문객이 추구하는 욕구가 현장에서 만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죽음의 현장’이 예측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 곳, 그리고 위험이나 스틸을 체험하고자 곳 등 신기성 욕구가 제주4.3평화공원 방문객들에게 충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인 곳과 차별적인 경관, 관광시설, 흥밋거리, 문화 등의 특이성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추모를 위한 곳이나 신성한 곳을 추구하는 방문객들에게 충족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제주4.3평화공원은 역사적으로나 추모하는 곳으로나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제주4.3평화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썬너투어리즘 관점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아픔을 성숙시키고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2주간의 짧은 기간에 조사됐다는 점과 제주방문 관광객이 모집단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관광지의 현장을 방문하는 다양한 목적지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일제(日帝)의 유적지가 곳곳에 있는 국내의 상황을 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기홍·정용용·권봉현 (2004). 관광동기요인이 관광지 선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6(1), 50-74.
- 변수녀·최병길(2007). 관광동기, 만족 및 관광지 충성도간의 관계 구조모델: 제주 휴양관광객 대상. 『관광·레저연구』, 19(3), 29-48.
- 서진우·전인호·유행주(2005). 울산방문객의 관광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4(2), 279-291.
- 송재호·김향자(2009). Dark Tourism의 장소로서 민중공원의 개념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국내·외 민중공원 사례를 통한 접근. 『관광연구저널』, 23(1), 71-87.
- 서철현(2009). 『관광학 총론』. 서울: 백산출판사.
- 장애옥·최병길(2011).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동기와 특성: 제주 4.3평화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23(1), 65-84.

- 최준식(2010). 진정한 죽음준비는 버킷 리스트에 있지 않다.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6, 1-31.
- 한숙영·조광익(2009). 현대 사회에서의 위협과 관광: 다크투어리즘의 경우. 『학술연구 발표논문집』, 한국관광학회, 2009(7): 480-495.
- 현혜경(2008). 제주4.3의 기억과 다크투어리즘: 사회운동으로의 전망. 『4.3과 역사』, 8, 307-339.
- 한국일보(2006). 『봉은사 웰다잉 체험교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2006061438281>
- Ashworth, G. J.(1996). Holocaust tourism: The lessons of Krakow-Kazimierz. In Robinson, M. and Evans, N. (Eds.) *Tourism and Culture towards the 21st Century*, 1-12.
- Ashworth, G. J.(2004). *Tourism and the heritage of atrocity: Managing the heritage of South African Apartheid for entertainment*. In Singh, T. V. (Ed) *New Horizons in Tourism: Strange Experiences and Stranger Practices*. Cambridge MA, CABI. publishing, 95-108.
- Ashworth, G. J., & Hartmann, R.(2005). *Introduction: Managing atrocity for tourism*. In Ashworth, G. J. and Hartmann, R. (Eds) *Horror and Human Tragedy Revisited: The Management of Sites of Atrocity for Tourism*. New York, Cognizant, 1-14.
- Bristow, R., & Newman, M.(2004). Myth vs. fact: An exploration of fright tourism. Paper presented at the 2004 Northeastern Recreation Research Symposium, Westfield State College.
- Bruner, E.(1996). Tourism in Ghana: The representation of slavery and the return of the Black Diaspora. *American Anthropologist*, 98(2), 290-304.
- Chery, F.(2007). Of golden anniversaries and bicentennials: The convergence of memory, tourism and national history in Gha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vel and Travel Writing*, 7(2). 15-32.
- Dann, G. M. S.(1995). Tourism: the nostalgia industry of the future. In Theobald, William, F. (Ed). *Global Tourism*. Oxford, Butterworth-Heinemann, 35-37.
- Dann, G. M. S., & Seaton, AN.(2001). Slavery, contested heritage and thana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Administration*, 2(3/4): 1-29.
- Dunkley, R. A.(2007) The thanatourist: Collected tales of the thanatourism

- experience. 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Wales.
- Foley, M., & Lennon, M.(1996a). Special issue: Dark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4), 194-244.
- Foley, M., & Lennon, J. J.(1997). Dark tourism: An ethical dilemma. In Foley, M., Lennon, J. J. and Maxwell, G. A. (Eds). *Hospitality, tourism and leisure management: Issues in strategy and culture*, London, Cassell, 153-164.
- Kang, E. J.(2011). Benefits of visiting a 'dark tourism' site: The case of the Jeju April 3rd, *Tourism Management*, in Press.
- Kozak, M., & Rimmington, M.(2000), Tourist satisfaction with Mallorca, Spain, as an off-season holiday destin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3), 260-269.
- LaTour, S. A., Nancy, C., & Peat, N. C.(1979),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consumer satisfaction research.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6, 431-437.
- Lennon, J., & Foley, M.(2000). *Dark Tourism*. London: Cassell.
- Oliver, R. L.(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 46-49.
- Oliver, R. L., & Swan, J. E.(1989). Consumer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equity and satisfaction in transactions: A field survey approach. *Journal of Marketing*, 53, 21-35
- Rojec, C.(1993). *Ways of Seeing-Modern Transformations in Leisure and Travel*. London: Macmillan.
- Seaton, A. V.(1996). Guided by the dark: From thanatopsis to thana-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4, 234-244.
- Seaton, A. V., & Lennon, J. J.(2004). Thanatourism in the early 21st century: Moral panics, ulterior motives and alterior desires. In Singh, T. V. (Ed). *New Horizons in Tourism Strange Experiences and Stranger Practices*, Wallingford, CABI, 63-8 1.
- Sharpley, R.(2003). *Tourism Tourists and Society* (Third Edition). Huntingdon, Elm Publications.
- Stone, P. R.(2005). Dark tourism consumption - A call for research. *e-review of Tourism Research* (eRTR), 3(5), 109-117.
- Tarlow, P.(2005). The appealing dark side of tourism and more. Novelli, M.(Ed). *Niche Tourism: Contemporary Issues, Trends and Cases*.

London, Elsevier, 47-58.

Tse, D. K., & Wilton, P. C.(1988). Models of consumer satisfaction formation: An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5, 204-212.

Yoon, Y., & Uysal, M.(2005).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destination loyalty: A structural model. *Tourism Management*, 26, 45-56.

Uysal, M., & Jurowski, C.(1994). Testing the push an pull facto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4), 844-846.

Walter, T., Littlewood, J., & Pickering, M.(1995). Death in the news: The public invigilation of private emotion. *Sociology*, 29(4), 579-596.

<http://en.auschwitz.org.pl/m/index.ph>

2011년 3월 28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1년 4월 22일 1차심사 완료

2011년 5월 3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1년 5월 8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